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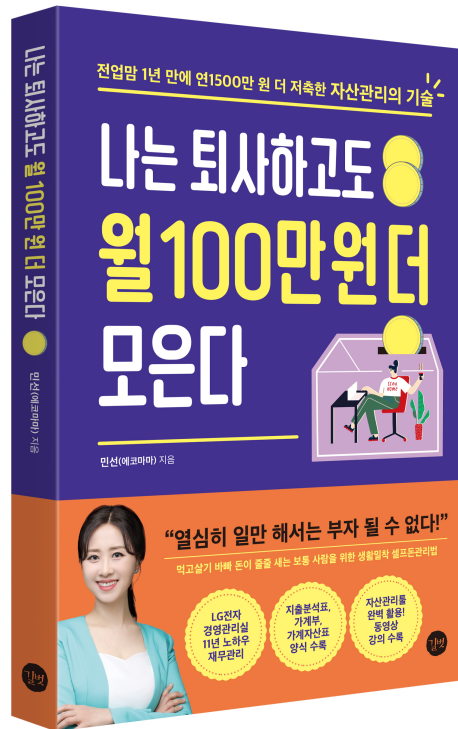
독자의 1초를 아껴주는 정성

주소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10길 56 대표전화 (02)332-0931 팩스 (02)338-0388 홈페이지 www.gilbut.co.kr

담당자 자녀교육서팀 황지영 02-330-9829 jyhwang@gilbut.co.kr

나는 퇴사하고도 월 100만 원 더 모은다

부제: 전업맘 1년 만에 연1500만 원 더 저축한 자산관리의 기술



지은이 | 민선(에코마마) 발행일 | 2020.11.30.

분야 | 경제경영 > 재테크 판형 | 140*205

형태 | 무선 페이지 | 244쪽 정가 | 14,000원 ISBN | 979-11-6521-371-8 (03320)

■ 책 소개

돈 버느라 바빠 정작 돈이 어디로 줄줄 새는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생활밀착 셀프돈관리법

내 돈을 탄탄하게 지켜주고 불러줄 가장 현실적인 자산관리의 기술

부자가 안 되면 큰일 날 것 같은 사회 분위기 속에 살고 있지만, 돈 버느라, 먹고사느라 바빠, 경제 신문 한 자 들여다볼 시간조차 사치인 사람들도 있다. 야근에 특근까지 하고 집에 오면 잠들고 눈뜨자마자 출근하는 삶을 반복하다 보면, 비트코인으로, 주식으로, 부동산으로 부자가 됐다는 건너건너 지인의 소문은 탄 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진다. 이 책의 저자인 민선 역시 그랬다. 대기업 다니는 워킹맘에게 가정 경제 관리란, 월급을 꼬박꼬박 받는 것, 보험료, 공과금, 세금, 교육비, 관리비, 카드값이 안 밀리고 잘 빠져나가는지 체크하는 것, 집안에 떨어진 생필품이 없는지 살피고 가격 비교하고 채워두는 것이었다. 외제차 안 타고 사치 안 하니 알뜰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이 문제로 ‘갑자기’ 퇴사를 하게 되었다. 소득이 갑자기 반으로 툭 깎이고야 절박함에 돈 관리를 시작하게 되었다. 퇴사 전에는 생활고에 시달릴까 봐 덜덜 떨었지만, 돈에 관심을 갖고 돈 관리를 시작하자 나도 모르게 허투루 줄줄 새는 돈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다. 저자는 11년간 LG전자 경영관리실에서 재무 관리하던 노하우를 가정 재무 관리에 적용했다. 새는 돈 막고, 불필요한 지출을 다룬다 보니 퇴사 전보다 퇴사 후 저축액이 무려 연 1500만 원 더 늘어 있었다. 퇴사 전보다 퇴사 후 자산 증식 속도가 더 빨라진 것이다! 《나는 퇴사하고도 월 100만 원 더 모은다》는 저자 민선처럼, 돈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제대로 배워본 적 없어서, 지금 현재 가진 돈이 얼마인지, 매달 나가고 있는 돈이 얼마인지도 모른 채 그저 돈을 벌기만 하고 있는 경알못을 위해 부자로 가는 첫 걸음을 안내하는 책이다.

열심히 일만 해서 부자가 될 수 없다! 돈을 모으고 싶다면 돈 관리를 시스템화하라 자산 관리 툴과 동영상 강의 수록!

《나는 퇴사하고도 월 100만 원 더 모은다》는 퇴사를 권하는 책이 아니다. 과거의 저자처럼 일하느라 눈코 뜰새 없이 바빠서 정작 고생하며 힘들게 번 돈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허투루 흘려보내는 사람들을 위해 자산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책이다. 저자는 재무 관리를 5단계로 나누어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을 철저하게 파악하고, 수익과 지출을 제대로 통제하는 방법을 가르쳐준다. 이 책의 핵심은 무조건 아끼고 허리띠를 졸라매라는 것이 아니라, ‘저자만의 자산 분석 툴’들을 사용해 매우 현실적이고 체계적으로 내 지출과 자산을 관리하는 법을 안내해준다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책 속에, 저자가 직접 만든 셀프 자산 관리툴들, 원페이지 가계자산표, 지출분석표, 예산표,

가계부를 다운받을 수 있도록 QR 코드를 삽입했다. 또한 자산 관리 툴을 100% 활용할 수 있도록 저자의 동영상 강의도 담았다. 이 책은 먼 미래의 금은보화를 약속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당장 당신 주머니 속에 월 100만 원씩을 차곡차곡 쌓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저자의 안내를 잘 따르고 책 속 툴을 제대로 활용한다면 진짜 힘들게 번 소중한 내 돈을 지키고 불러나갈 수 있을 것이다.

■ 저자 소개

지은이 민선(에코마마)

LG전자 경영관리실에서 11년간 근무하며 재정 관리 업무를 하다가, 아이 문제로 퇴사 준비도 못한 채 계획도 없이 전업맘이 되었다. 퇴사로 별이가 줄어드는 위기감에 부랴부랴 돈 공부를 시작했고, 그제야 집안 재정이 눈에 들어왔다. 그동안 회사 재정만 칼같이 관리했지 집안 재정은 엉망이었다.

그간 회사에서 쌓은 노하우를 가정 재정 관리에 적용하기로 결심, 셀프 자산 관리툴을 만들어 돈 관리를 시작했다. 여러 시행착오를 겪은 결과 맞벌이에서 외벌이가 되어 수입은 확 줄었지만, 퇴사 전보다 퇴사하고 나서 월 100만 원 '더' 저축액이 늘었고, 경제 공부를 하며 투자와 사이드 프로젝트를 진행했더니 무려 1년에 1500만 원씩 '더' 모으게 되었다. 야근 특근을 밥 먹듯 하던 회사에서 벗어나 아이와 보내는 시간도 늘었는데 경제적으로는 더 여유 있어진 것이다.

돈에 관심이 없어 일은 일대로 하고 정작 돈은 제대로 모으지 못하던 자신과 같은 실수를 사람들이 하지 않기를 바라며 '월 100만 원 더 모으는 돈 관리법'을 코칭하고 있으며, KBS 등 방송에 출연해 절약 노하우를 나눈 바 있다. 현재는 육아와 일의 밸런스를 맞추며 다양한 도전을 하고, 디지털 노마드로서 사이드잡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고 있다.

블로그 blog.naver.com/ecomama1835

■ 책 속으로

대기업 경영관리실과 경영기획부서에서 11년 근무하며 거의 매일 매출, 영업이익, 지출 등 조 단위의 돈을 관리하며 보고했다.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더니, 그때 나는 '돈'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 회사에서 관리하던 '돈'은 나에게 단순히 모니터 속 숫자, 해야 할 일일 뿐이었다. 상사 눈치 보며 업무에 치이고 퇴근하면 집으로 출근이었다. 워킹맘으로 먹고살기 바빠 우리 집 재정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생각해보지 못했다. 그저 관리비, 카드값이 밀리지 않고 제때 빠져나가는지 체크하는 것, 그 정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프롤로그 중에서>

꾸준히 장기적으로 돈 관리를 하려면 내게도 시스템이 필요했다. 그래서 큰 힘 들이지 않고도 자동으로 자산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산 관리 툴을 만들어 나만의 돈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나이가 블로그에 매달 가계부와 자산 현황을 정리해서 올리고, 남편에게도 매달 우리 집 자산 현황을 브리핑했다. 나 스스로 블로그 이웃과 남편과 약속을 함으로써 돈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든 것이다. <프롤로그 중에서>

그러면 나는 왜 회사에 다니고 있을까? 입사를 간절히 꿈꿨던 회사이기도 했지만, 속내를 자세히 들여다 보면 결국 월급 때문이었다. 다른 회사에서 월급을 더 많이 준다고 하면 주저하지 않고 이직했을 테니 말이다. 내가 회사에 다니는 이유는 단지 돈 때문이었던 것이다. 멋진 커리어 우먼이 되겠다는 다짐은 어디 가고 회사에서는 평가가 안 좋으면 어떡하나 전전공공, 집에 와서는 아이가 엄마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해 혹여나 잘못될까 안절부절. 회사에서든 가정에서든 뭐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 같아 늘 죄인이 된 기분이었다. 아이에겐 항상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워킹맘으로 산다는 것 중에서>

어느 날부터가 아이가 장난감을 던지며 소리를 질러댔다. 어르고 달래도 통제가 되지 않았다. 순했던 아이가 괴팍하게 변해 있었다. 내 감정이 아이에게 고스란히 전해졌나 보다. 하지만 아이의 폭력적인 모습을 보며 미안해하는 것도 잠시, 유난스럽고 과격하게 행동하는 아이가 버겁고 함께 있는 시간이 괴로워졌다. <퇴사할 타이밍은 너무 자주 온다 중에서>

나에게 있어 가정 경제의 운용이라 함은 관리비와 세금, 보험 등이 잘 빠져나가고 있는지 확인하고, 수시로 닥치는 명절과 어버이날, 각종 대소사를 깜빡하지 않고 용돈을 챙기는 정도였다. 당시 우리 집 재정부 장관으로서 한 일은 통장에 돈을 잊지 않고 넣어두는 것이었다. 심지어 이자도 얼마 안 된다며, 예·적금도 들지 않았다. 재정부 장관으로서 해야 할 역할을 전혀 안 한 셈이다. 사실 우리 집 재정 상태를 잘 모른다는 것도, 휴직 후 앞으로 뭘 해 먹고살아야 할지 궁리하다가 알았다. 하고 싶은 일이 떠올라 여윌돈이 얼마나 있는지 찾아보다 깜짝 놀랐다. 어디까지가 생활비인지, 어디서부터 비상금인지, 얼마부터 여윌돈인지 전혀 구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 집 재정이 이렇게나 엉망진창이었다니 중에서>

자산 파악이 뭐 그리 어렵나 생각하겠지만 ‘부동산과 예·적금뿐 아니라 보험, 자동차 등을 포함해 전체 자산이 정확히 얼마나 돼요?’라고 물으면 정확한 수치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생각보다 많지 않다. 나도 그런 사람 중의 한 사람이었다. 부동산과 저축액은 대충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있었지만, 연금과 보험은 얼마나 납입했는지 전혀 몰랐다. 가입한 금융상품들이 언제 만기인지도 모른 채 매월 자동이체로 빠져나가고 있었다. ‘어차피 그래 봐야 얼마 안 될 거야’라며 확인하는 것도 차일피일 미뤘었다. <step 1 자산 분석: 보유 자산 철저히 파악하기 중에서>

나는 경영관리실과 경영기획팀에서 10년 넘게 근무하며 회사의 재정 상태를 파악하고 재정을 관리하는 법을 배웠다. 퇴사 후 방황하던 시절, 내게 남은 건 고작 엑셀을 다루는 능력뿐인데, 이걸 어디다 써먹느냐고 한탄하곤 했다. 그런데 하찮은 재주라고 생각했던 그 능력이 돈 관리에 요긴하게 사용될 줄이야! 우리 집 재정을 관리해야겠다고 마음먹었을 때 회사에서 배웠던 지식과 엑셀은 큰 도움이 되었다.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머릿속에 자산을 어떻게 분류해 파악하면 될지 그림이 그려졌다. <step 1 자산 분석: 보유 자산 철저히 파악하기 중에서>

6개월 지출 분석 자료를 항목별로 월평균을 냈다. 그리고 지난 6개월의 월평균 지출보다 적게 예산을 수립했다. 처음 예산을 수립할 때는 5~10% 정도 삭감해 책정했더니 지출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 예를 들어 지난 6개월 식비 평균이 50만 원이었다면 예산은 5% 줄인 47만 5,000원으로 책정하는 것이다. 모든 항목을 일괄적으로 10% 줄이기보다는 항목별로 예산을 책정해야 예산 내 소비 통제가 가능하다. <Step 3 예산 수립: 돈이 줄줄 새지 않도록 지출 바운더리 만들기 중에서>

■ 추천의 글

절약은 긍정적으로, 소비는 단호하게! 에코마마 본인이 직접 경험을 통해 깨닫게 된 살림의 지혜를 엮은 결정판이 드디어 세상과 만났다. 매월 새는 돈 100만 원을 찾아내 아낄 수 있다는 촘촘하게 설계된 엄마표 자산 관리 기술로 우리 집 재정상태를 꼼꼼히 진단하자. 그동안 어렵고 귀찮게만 느껴져 돈 관리를 망설였던 당신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선물이 되어줄 것이다. _ (주)부동산클라우드 대표 서울휘

부자가 되는 방법은 다양하다. 고소득 전문직을 가질 수 있고,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를 할 수도 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저자는 돈을 확실히 지키고 모을 수 있는 자산관리 기술뿐만 아니라 자산을 늘리기 위한 추가 수입 창출 노하우까지 이 책에 아낌없이 담았다. 일하기 바빠 돈 관리를 못 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이 책을 펼쳐보길 바란다. _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부의 공식》 저자, 부자멘토 이지윤

경제를 모르고 투자하는 것은 눈을 감고 운전하는 것과 같다. 돈에 관심이 없는데 부자가 되고 싶다는 마음은 눈을 감고 운전하는 것보다 위험할 수 있다. 이 책은 무심하게 썼던 돈에 대한 소비 습관을 바로 잡아주고, 통장에 스쳐 지나가는 돈을 지킬 수 있는 현실적인 돈 관리법을 상세하게 알려준다. 그리고 무엇보다 돈에 관심을 갖고 돈 공부를 하고 싶게 만들어주는 책이다. _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

우리 사회는 돈 얘기를 늘 터부시해왔던 듯하다. 이 때문에 돈에 대한 이해, 돈에 대한 교육 한번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이 책은 종잣돈을 모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지침서가 되어줄 보기 드문 입문서이다. 이 책은 부자가 되고 싶지만 지금 당장 뭘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첫걸음으로 이 책을 권하고 싶다. _ 명지대학교 교수 박정호

우리는 지금보다 더 행복하기 위해 돈을 모으고 불리고 부자가 되길 바란다. 그런데 돈에 너무 집착하거나 삶의 우선순위가 돈이 되어 행복은커녕 스트레스받는 사람들을 보곤 한다. 나의 닉네임처럼 행복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돈도 즐겁게 모아야 한다. 이 책에서 설명하는 대로 단계별로 따라 하기만 하면 스스로 돈 관리를 할 수 있고, 즐겁게 돈도 모을 수 있다. 행복 부자로 가는 첫걸음으로 이 책을 추천한다. _ 행복부자 사이니, EBS 영어강사 김재영

■ 차례

프롤로그_ 돈, 사실은 맞벌이 때 알았으면 더 좋았을 것들
추천의 글

part 1. 어느 날 준비 없이 전업맘이 되었다

나도 한때는 일 좀 하던 커리어 우먼
워킹맘으로 산다는 것
퇴사할 타이밍은 너무 자주 온다
아이를 위해 결국 사표를 내다
우리 집 재정이 이렇게나 엉망진창이었다니

퇴사하고 월 저축액이 100만 원 더 늘다

part 2. 재정 관리의 첫걸음, 있는 돈 붙잡기

step 1. 자산 분석: 보유 자산 철저히 파악하기

[box] 3가지 항목으로 자산 분류하기 | 자산 파악을 통해 얻은 3가지

step 2. 지출 분석: 어디에 얼마를 쓰고 있을까

step 3. 예산 수립: 돈이 줄줄 새지 않도록 지출 바운더리 만들기

[box] 보험 가입 및 리모델링 시 알아두어야 할 것 | 자동차 보험 가입 시 챙겨야 할 사항 | 세금, 관리비 등 고정비도 줄여보자

step 4. 통장 쪼개기: 목적별로 자산 관리하기

step 5. 돈 지키기: 가계부 쓰기부터 월말 결산까지

[box] 가계부 쓰기 노하우

part 3. 부자로 가는 첫걸음, 새는 돈 막기

미래를 실현하기 위한 로드맵

나의 지름신에 브레이크를 걸다

돈 모으기의 작은 시작, '종자돈'

절약을 습관화하는 법

집밥이 재테크다

부자 되는 똑똑한 습관, 미니멀 라이프

part 4. 경제적 자유의 첫걸음, 내 가치 끌어올려 추가 수입 만들기

퇴사 후 다시 나를 발견하다

나에게는 시간이라는 자산이 있다

블로그, 수입 창출의 도구가 되다

실행이 어려운 분들에게 _실행 마인드 세팅하기